

이기는 삶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무 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 그때그때 자신이 필요한 것만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부자런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아주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알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있다.

### 하나가 되는 길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는 알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 님도 하나이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다. 한마디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화합하라는 이야기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가 되려면 나의 주장을 꺾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포용과 양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옳다고 하여 끝까지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조금 돌아가면 어떤가, 조금 늦게 가면 어떤가,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당장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더 빨리 더 멀리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동차 한 대에는 2만 개 이상의 부속품이 들어 있다. 그 부속품은 모두 중요하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다. 그런데 이 부품들을 따로 떼어 놓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 할 뿐 아니라 그 부품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부속품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조립이 되어 있어야 한



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려는 것은 지위와 역할까지 모두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의 부속품처럼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도 혼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건강을 해치는 마음

피와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오늘 날의 심신상관의학의 발달로 어느 정도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먹어야 피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는가, 또 어떤 마음을 먹으면 피가 탁해지고 병이 걸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밝혀낸 곳은 없다. 각별히 이것을 쉽게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일 것이다. 대부분 느끼다시피 세상에 불행 불행하지만, 몸 아프고 치료 못 받는 실증만 한 것도 없다. 그러나 사실 병 걸리지 않고 몸 안 아프게 하는 길을 알려 주는 것만큼 좋은 일, 복 짓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논하는 인간의 건강과 젊음, 성공의 열쇠, 인간의 행복, 더 나아가 불로불사의 실현까지 가능하도록 제시하기 기쁨과 감사로 열독해 주길 바란다.

우선, 나에게 진짜 유익한 학문이라면 어렵고 난해하여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 좋은 학문이란 쉽고 평이 해서 바로 접목해서 실천하게끔 해야 된다. 자야, 그림 가장 피가 급격하고 많이 탁해져서 건강을 해치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사례를 살펴보자.

해서 바로 접목해서 실천하게끔 해야 된다. 자야, 그림 가장 피가 급격하고 많이 탁해져서 건강을 해치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사례를 살펴보자.

#### 첫째는 낙심, 절망, 포기이다

이 마음은 삶의 의욕을 잃게 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하며, 사람이 점점 무기력해서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현대 의학에서 '절망병'이라는 신종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질병 중에 하나다. 삶의 의욕이 없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그만큼 피가 많이 썩은 상태이다. 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잃는 것을 넘어서 무수한 사건 사고로 발달해 이웃과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불러일으킨다.

#### 둘째는 분노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폭탄에 비유할 정도로 위험

천만한 마음이다. 자기의 몸을 순간 파괴할 정도로 가공할 피의 탁함을 불러일으키며, 주위 사람과 환경에도 그 여파가 미쳐 폭행과 기물파괴와 살인행위도 서슴치않는 사회적 범죄행위에 가깝다. 분노는 가슴을 터뜨릴 정도로 피가 급격히 탁해지게 되고, 뒷목덜미가 뻣뻣해지며, 눈이 뒤집혀질 정도로 몸의 비정상적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치명적인 감정이다. 예부터 화병으로 일찍 죽는 것을 흔히 많이 듣고 보아왔을 것이다.

#### 셋째로는 미워하는 마음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못마땅하다가 점점 심해지면 미치도록 미워지는 것이다. 성경에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규정할 정도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신은 잘 하고

남이 잘못해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상대가 악의든 고의든 간에 자신에게 불쾌감과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공물이다. 이는 자신의 피가 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분도 상하고 직장 생활도 힘들게 된다. 심하면 육체에 갖가지 몹쓸 병이 짓는다.

#### 넷째는 욕심 부리는 마음이다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거나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 욕심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수면욕, 재물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신의 분수와 재량에 맞게 마음을 갖고 행하고 살면 되나, 억지로 도와 분수를 넘어 과욕을 부리다 피를 더럽히고 건강까지 잃게 된다. 욕심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제대로 살피지 못해 일을 그르쳐 폐가 팽신하기에 이르게 하는 못된 마음이다. 욕심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는 아나, 어디 그 욕심 버리기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From where does the Messiah appear?

- 성경에는 구세주가 나타날 땅은 동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이사야 2).
  - ▶ The Bible says the land in which the Messiah will appear is in the East (Isaiah 41:2).
  - 많은 동양의 비밀이나 예언서들은 또한 메시아가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 ▶ Many Eastern secret or prophetic books also say the Messiah will appear in Korea.
  - 인도의 위대한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한국이 장차 동방의 빛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 ▶ The great Indian poet Rabindranath Tagore predicted that Korea would be the light of the East someday.
  -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한국을 메시아의 땅으로 드러내주셨습니다.
  - ▶ God has revealed Korea as the land of the Messiah in many ways(Revelation 2:17).
  -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긴자에게 흰 돌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계 2:17)
  - ▶ The Bible says God will give a white stone to the Victor.
  - 이긴자 하나님은 소사라는 흰 돌 위에 승리제단을 설립하셨습니다.
  - ▶ The Victor Christ has established the SeungNiJeDan on the white stone in Sosa.
  - 소사(흰돌)라는 지명이 성경에 있듯이 500년 전 한국의 예언서 격암유록은 소사의 일부본인 역곡을 언급했습니다.
  - ▶ As the geographical name Sosa(White Stone) is in the Bible, the 500-year-old Korean Revelation Kyogam Yurok referred to Yokkok, a part of Sosa.
  - 이긴자 하나님은 한반도의 김포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구 동쪽 끝)
  - ▶ And the Victor Christ was born in Kimpo of Korean Peninsula. (the east end of the earth)
- by Alice

가 쉬운가!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조절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한다. 욕심 버리는 법, 욕심 다스리는 법은 나중에 별도로 공부해 보기로 하자.

도무지 모르고 사니 인간이 천수(天壽)를 못 누리는 것이다. 애꿎은 세월만 한탄하다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다. 오죽해 알아야 면장(免難)한다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면장이 무슨 시골 면장(面長)의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초상 치르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죽음을 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서도 알면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인데, 모르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 다섯째는 무지(無知)의 병이다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피가 탁해지고 어떻게 하면 피가 깨끗해지는가 하는 마음을 분별하여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혜가 없으니, 피가 썩는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는지, 안 그러면

## 참 구세주요 정도령이신 조희성(밝은별 새벽별)님은 마지막 심판자요 알파와 오메가다

작된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첫 번째 인을 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 인을 뎀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인을 뎀 야곱의 하나님, 네 번째 인을 뎀 단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오다가 갠간세월 동안 사람의 핏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잠복해 있다가 때가 되니 20세기 중반부터 하나님의 천지공사 한국편이 시작된다. 다섯 번째 인을 뎀 박태선 장로님은 부친 소사(素砂) 범박동과 계수리 산 일대에 신앙촌을 건설하고 전도관을 세워 마귀 신에게 포로가 된 잃어버린 해와 아담을 찾는 역사를 펼친다.

격암유록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하늘의 역사는 시작도 끝맺음도 소사에서 하고(始終艮野素砂地: 시종간야소사지), 하늘나라가 무너져도 소사에서 다시 세워진다(天崩地圻素砂立: 천붕지탁소사립)라고 6000년 전에 무너졌던 하늘나라 예멘 동산이 오늘날 이 소사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전도관 역사가 시작된 지 20여 년 만에 먼저 여섯 번째 인을 뎀 해와 이긴자를 배출하고 그후 20세기 후반인 1980년 10월 15일자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뎀 아담이긴자가 완성자가 되어 하나님의 전유물인 전지전능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어 경기도 부천

시 소사구 역곡3동에서 <영생교 하나님 수> 심판의 불로 온 우주가 뜨거워지는데 그 불속에서 건디는 자가 의인(煙丹)이요 구원하는 영생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

참구세주 정도령은 첫째, 참진리가 되는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학설을 논하시고, 둘째, 참구세주 정도령의 증표인 이승성신(성경 호세아서 14:5), 감로수(불경), 감로해인(격암유록)을 들고 오시며, 셋째,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행할 수 있으며, 넷째, 자유율법의 골자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내 상전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상대방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상대방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겨라! 하는 간단 명료한 율법을 논하시고 다섯째, 각자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이는 열마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밖에도 구세주론·구원론·부활론·말세론·안식일론·순교자론·천국론과 피의 원리와 영과 육이 하나라는 영육일체설을 논하시며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몸에서 발산되는 중성자 빛감로

수) 심판의 불로 온 우주가 뜨거워지는데 그 불속에서 건디는 자가 의인(煙丹)이요 구원하는 영생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 참구세주 정도령은 첫째, 참진리가 되는 사람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학설을 논하시고, 둘째, 참구세주 정도령의 증표인 이승성신(성경 호세아서 14:5), 감로수(불경), 감로해인(격암유록)을 들고 오시며, 셋째,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행할 수 있으며, 넷째, 자유율법의 골자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내 상전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상대방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상대방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겨라! 하는 간단 명료한 율법을 논하시고 다섯째, 각자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이는 열마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밖에도 구세주론·구원론·부활론·말세론·안식일론·순교자론·천국론과 피의 원리와 영과 육이 하나라는 영육일체설을 논하시며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몸에서 발산되는 중성자 빛감로 수) 심판의 불로 온 우주가 뜨거워지는데 그 불속에서 건디는 자가 의인(煙丹)이요 구원하는 영생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

하나님의 피와 몸으로 변해 영생하게 되고 마귀 마음을 품으면 마귀의 피와 몸으로 변해 사망하게 된다. 사람이 마음먹는 대로 이 세상 공기가 변한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호흡할 때에 악영이 나오는 고토 이 세상 공기가 오염된 공기로 변하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이 세상 공기가 정화되어 신선한 공기로 변한다. 이러한 학설을 이 세상 어느 대학원에서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마귀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으며 이 고차원의 학설을 논하는 곳이 바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승리제단뿐이다.

말하나라고 쓰여 있다.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변해 사망하게 된다. 사람이 마음먹는 대로 이 세상 공기가 변한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호흡할 때에 악영이 나오는 고토 이 세상 공기가 오염된 공기로 변하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이 세상 공기가 정화되어 신선한 공기로 변한다. 이러한 학설을 이 세상 어느 대학원에서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마귀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으며 이 고차원의 학설을 논하는 곳이 바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승리제단뿐이다.

성경에는 나를 버리라고 하였다. 불경에도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고 쓰여 있다. 유교에서는 크기승자천하승이라 말하고 있으며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고 하였다. 성현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를 버리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이 세상 종교가들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참구세주 정도령님은 '나라'하는 것이 마귀요 원죄요 선악과요 사람을 죽이는 사자귀신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앞으로 또 여덟 번째 의인이 나오고 아홉 번째 나오고 하는 일은 없다. 일곱 번째로 막을 내린 마지막 심판의 역사다. 이 마지막 때의 피나치는 심숙지요 심숙지가 바로 참구세주요 정도령이다. 세계 만민들이여! 이제는 이 확실한 하늘의 역사 심판의 역사에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여기 승리제단에 와서 앞으로 몰아닥칠 더 무서운 괴질과 환란을 피할 수 있다. 조희성님은 분명 한 참구세주요 정도령이요 마지막 심판자요 처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신 알파와 맨 나중으로 오신 하나님의 신 오메가이다.\*